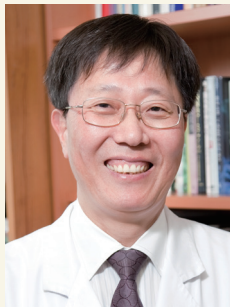


# 록펠러의 가장 성공한 자선사업...의학연구소

글 이재담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석유왕 록펠러의 사회적 평판은 좋지 않았다. (한 달에 약 5만 건에 달하는 기부 요청을 일일이 들어줄 수 없기도 했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욕심 많은 자본가로 비춰졌고 언론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았다.

시카고대학 설립 등 다양한 사업에 이미 많은 기부를 했던 그가 새로운 의학연구소를 세운 데는 이런 분위기와 자선사업에서 그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프레데릭 게이즈 목사의 의견이 크게 작용했다(1897년 윌리엄 오슬로 박사의 <내과학> 책을 여름휴가 동안 의학사전을 찾아가며 통독한 뒤 대부분의 질병이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게이즈가 파리의 파스퇴르연구소나 베를린의 코흐연구소와 비슷한 시설을 만들어 의학에 투자하는 것이 장차 가장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록펠러에게 건의했다).

록펠러가 의학연구소 계획을 실천에 옮긴 것은 1900년이었다. 그는 향후 10년 동안 매년 20만 달러씩의 기부를 약속하며 이 사업의 책임자로 존스홉킨스대학의 초대 학장이던 윌리엄 웰치 박사를 초빙했다. 웰치는 미국에 독일식 의학을 도입한 인물로 독일 유학 당시 가스탄저균을 발견한 우수한 연구자였다. 웰치는 제자이자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병리학자 사이먼 플렉스너를 연구소장으로 지명했다. 플렉스너는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종신교수 직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수개월을 고민하다 '연구원 초빙 때 능력에 맞는 높은 보수를 지불할 것, 임상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작은 부속

병원을 연구소에 설립할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걸고 연구소장을 수락했다.

37세에 소장에 취임한 플렉스너에게는 인재를 발견해내는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 그는 우수한 능력을 지녔으면서도 자리를 잡지 못한 인간, 성격이 모난 독불장군, 좀 이상하다고 알려진 괴짜들을 전 세계에서 모아왔다. 이런 이들에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창조적인 일을 해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매독약 살발산을 만든 독일의 파울 에를리히, 매독균 연구의 권위자이던 일본의 노구치 히데오, 미국 최초의 노벨의학생리학상을 받게 되는 프랑스의 알렉시스 캐럴 등이 그들이었다.

록펠러는 연구소 기금 관리를 과학자 본인들에게 맡겼는데 이는 유례가 없는 획기적인 시도였다. 위대한 두뇌들을 잡일에서 해방시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에 몰두하도록 한다는 것이 연구소의 암묵적인 약속이었다. 그는 심지어 연구소를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다른 사람들도 견학 오니 한번 들르시라"는 관계자들의 권유를 "그렇다면 나까지 가서 그들의 시간을 빼앗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라며 번번이 거절했다).

1910년 뉴욕에서 뇌척수막염이 유행했을 때 연구소는 시민들에게 대량의 항혈청을 무료로 제공해 명성을 떨쳤고, 1912년에는 캐럴의 노벨상으로 미국을 선도하는 의학연구소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록펠러는 평생 6,100만 달러를 연구소에 기부했는데 현재 가치로는 6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금액이었다. 1965년 록펠러대학으로 바뀐 의학연구소는 1970년대까지 1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여 록펠러의 가장 성공한 자선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